

그리고 나서 나무밑에서 손뼉치기 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동작 수정을 해주었습니다. 20번도 못하고 이영숙씨는 힘들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하하하하...앞으로는 힘들다고 포기하면, 특급열차 타고 하늘나라 빨리 가는 것 입니다. 이 악물고 움직여야 살수 있습니다. 움직이면 살고, 편안하게 누우면 바로 가는 것 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내려와서 대화 하자고 하는 것 입니다. 본인의 의지와 인내가 없이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지요..”

“에.....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혈액은 심장의 펌프기능을 통하여 혈액 3KG가 매일 신체 전체 순환을 하지만 림프액 6KG는 펌프가 없기 때문에 면역세포, 죽은 세포, 바이러스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운동 외에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 입니다. 그래서 제가 6가지 림프 운동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일 30분씩 일일 2~3회를 하시어서 림프 흐름을 좋게 만들어야 몸에 하수구가 잘 뚫려서 몸이 깨끗하게 될 것 입니다”

그리고 나서 림프 운동 6가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 해주었다. 그리고 잠시 우리 신체 기관의 역할과 흐름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상식들이 혼자 암 투병 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고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암 투병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들려오는 암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로 인하여 흔들리는 마음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 여름날의 밤은 이렇게 온통 땀으로 목욕을 하고 내일을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서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에는 도시의 불빛에 의하여 별을 볼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은하수를 그리면서 돌고 있을 것입니다. 그곳을 향하여 마음속으로 이영숙씨를 위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김, 박목사님 내외분들이 저의 병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어제 어두웠던 이영숙씨는 오늘 한결 부드러워진 얼굴을 가지고 저의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